

##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 엮는 딸들의 이야기

손 현 주

버지니아 울프의 단편 「상징」(“The Symbol”)은 한 여인이 알프스의 휴양지 호텔에서, 창밖의 거대한 산을 바라보며 멀리 영국의 버밍엄에 있는 언니에게 편지를 쓰는 것을 이야기를 틀로 하고 있다. 휴양 차 이곳을 찾은 중년의 여인은 그 거대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삶과 경관 전체를 압도하는 알프스의 한 준령을 바라보며, 산은 무언가의 ‘상징’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산은” 그 부인은 호텔 발코니에 앉아 편지를 썼다 “... 상징이다” 그녀는 멈추었다. 안경 너머로 산꼭대기 높이까지 볼 수 있었다. 마치 그 상징이 무엇이 지 알아보려는 듯이 그녀는 안경의 초점을 맞추었다. 버밍엄에 있는 언니에게 편지를 쓰는 중이었다. (CSF 288)

그러나 과연 무엇에 대한 상징일까? 라는 의문이 그녀로 하여금 자신의 젊은 날과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되새기게 한다. 화이트 섬에서 병든 노모를 수발하며 어머니의 임종을 기다리던 때와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써 내려가다, 눈앞에서 산을 오르던 두 젊은이가 추락하는 것을 목격하고, 그녀는 편지쓰기를 멈춘다. 사람들이 이들의 시신을 수습한 다음 밤이 되어서야 쓰다만 편지를 발견하고 이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을 맺는다.

『울프단편전집』(*Virginia Woolf: The Complete Shorter Fiction*)에 수록되어 있는 이 작품의 텍스트는 자필 수정이 된 타이프 원고로 1941년 3월 1일 날짜로 되어 있다. 그리고 몇 주 후 3월 28일,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어느 날 울프는 우즈강에 걸어 들어감으로써 생을 마감한다. 이 작품을 쓰던 당시, 울프는 썬섹스(Sussex)의 해안가 로드멜(Rodmell)에 있는 자신의 시골집 명크스하우스(Monkshouse)에 칩거하여, 마지막 소설이 될 『막간』(*Between the Acts*)과 자신의 회고록인 「과거의 소묘」("A Sketch of the Past")를 집필하고 있었다. 당시 독일의 공습이 한창이어서 울프의 런던 집은 폭격으로 완전히 파괴되었고, 밤이면 공습을 피해 창밖으로 불빛이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두꺼운 커튼을 드리우거나 소등을 해야만 했다. 더구나 독일의 영국본토 상륙이 임박했다는 소문이 무성했고, 만일 상륙한다면 울프의 시골집이 위치한 썬섹스 해안가가 가장 유력하다고들 했다. 유태인인 남편 레너드(Leonard Woolf)와 함께 나치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있다고 확신했던 울프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차고 안에 휘발유를 비치해 두고, 두 사람이 함께 자살할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놓고 있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종말을 예감하며 쓴 이 작품은 울프가 생의 끝자락에서 자신의 삶을 회고하는 자서전적인 측면이 두드러진다. 이 무렵 씌어진 울프의 글들이 그러하듯 이 작품 또한 자신의 자아와 더불어 자신이 몸담고 있는 하나의 문명이 붕괴될지 모를 위기의 상황에서 삶의 의미와 스러져가는 문명에 대한 회한과 비전을 담고 있다. 울프의 자서전적 글쓰기는 그에게 있어 단순히 과거를 회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허무와 죽음, 광기, 전쟁 등 자신의 존재를 위협하는 세력에 맞서 자아를 정비하고 재창조해 내려는 울프의 적극적인 노력이었고, 그러한 면에서 이 짧은 단편도 예외는 아니다.

울프의 생의 한 가운데는 항상 그의 어머니, 줄리아 스티븐(Julia Stephen)이 있었고, 울프의 자서전적이 글쓰기는 『등대로』(*To the Lighthouse*)에서 볼 수 있듯이 어머니와의 관계를 탐구하고 재정립하는 것을 그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울프 개인의 어머니에 대한 집착과 그리움은 차치하고라도, ‘어머니’라는 존재는 한 개인의 발생근원이라는 점에서 자아 정체성의 바탕을 이룬다. 「상징」은 울프가 어머니의 죽음을 주제로 삼고 있는 여러 글 중의 아마도 마지막 작품일 것이다. 어머니와 그의 죽음에 대한 가장 심도 있는 탐색을 한 작품이 『등대로』라면, 「상징」은 울프 자신의 죽음과 종말이 다가옴을 예감하면서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 자기

자신의 삶과 죽음을 가늠해 보려는 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산’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의문을 풀어나가는 과정은 「상징」에 등장하는 중년여인의 실존적 의미에 대한 탐색임과 동시에 울프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한 탐색이기도 하다.

단편 「상징」에서 어머니의 존재는 우선, 편지를 쓰고 있는 중년의 여인이 회고하는 병상의 어머니로 나타난다. 그녀는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요양 차 화이트섬(Isle of Wight)에 갔었고, 그곳에서 어머니의 죽음을 기다렸다. 언니에게 보내는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써내려간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무렵에, 우리가 그곳에 모시고 갔던 것 기억하지. [...] 언니에게 말한 적은 없지만, 당연하지, 언닌 인도에 있었거든. 언니가 루시를 낳을 무렵이었어. 의사가 오면, 어머니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하실 거라고 분명히 말해주길 얼마나 바랐던지. 이런 상황은 아주 오래 지속되었고, 어머니는 십팔 개월을 더 사셨어. (CSF 289)

정신분석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어머니의 죽음은 주체(subject)의 탄생과 맞물려 있다. 줄리아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에 따르면, 라캉(Jacques Lacan)이 ‘거울기’(the mirror stage)라 부르는 단계 이전의 전기 나르시시즘(primary narcissism) 단계에서, 모체와 자신을 동일시하던 유아는 자신을 모체와 분리된 존재로 인식함으로써 주체(subject)가 되는 첫발을 내딛게 된다. 그러나 이 분리된 모성은 완전한 타자(the other)로 인식되지 않고 애브젝트(abject, subject도 object도 아닌 ab+ject)로 남아 주체와 타자와의 경계영역에 머무르게 된다. 이러한 모성 또는 모체의 잔재는 주체가 된 개인이 사용하는 언어에서도 감지될 수 있는데, 즉 언어의 규칙과 논리성으로 통제될 수 없는 요소들, 예를 들면, 유아의 웅얼이나 웃음, 억양 등이 있다. 모체를 분리해냄으로써 획득된 주체성은 그러나 확정된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생성과정에 있는 것으로, 라캉이 ‘아버지의 이름’(the name of the father)라고 부르는 논리와 규율, 그리고 억압된 애브젝트로서의 어머니 사이에서, 또한 상징계(the symbolic)과 기호계(the semiotic)사이를 오가며 그 정체성을 빚어내는데, 이를 크리스테바는 ‘생성과정에 있는 주체’(subject in process)라고 부른다. 그 결과 주체는 모체/모성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지니는데, 즉, 주체를 유지하기 위해 모체를 억압하고 부정하려는 성향과 더불어 모체와의 합일을 열망하는 것이

다. 이것은 욕망(desire)이 생겨나기 이전의 모체 내에서 누리던 완벽한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으로, 모체를 부정하려는 성향과 뒤섞여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모체와의 재결합은 주체의 죽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존재는 생명뿐만 아니라 죽음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다. 크리스테바는 모체를 향해 갖는 모순된 감정을 ‘매혹과 공포’(fascinating and terrifying)라고 묘사하는데, 흥미롭게도 올프는 「병에 관하여」(“On Being Ill”)에서 병증을 통해 들여다보는 자신 내부에 잠재된 세계(‘no man’s land’)를 묘사하면서 “매혹과 공포”(fascinations as well as its terrors)라는 거의 흡사한 표현을 사용한다. 이렇게 볼 때, 「상징」에 등장하는 여인이 자신의 어머니를 회고하면서 그녀의 죽음을 절실히 바랐던 것은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 꿈꾸던 삶을 자유로이 살 수 있는 주체로 탄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이처럼 어머니의 죽음을 기다리는 딸의 모습은 『세월』(The Years)에서도 유사하게 등장한다. 오랜 세월 병상에 누운 파지터 부인(Mrs. Pargiter)을 수발하던 딸들 중 하나인 델리아(Delia)는 어머니의 침실 앞에서 멈춰 선다.

그녀는 이 층으로 올라갔다. 한걸음 한걸음씩 아주 천천히. 바깥 테이블에 물 병과 유리잔들이 놓여있는 문 앞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멈춰 섰다. 병실의 시큼하고 들뜬한 냄새가 약간 역겹게 느껴졌다. 그녀는 들어갈 수가 없었다.  
(Years 21)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문 앞에 선 딸에게 어머니의 침실은 죽음을 잉태한 공간으로 다가선다. 「과거의 소묘」에서 올프는 어머니의 침실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더블베드가 들어있는 침실은 일 층에 있었고 그 집의 성적인 중심, 즉 탄생의 핵심이며 죽음의 핵심이었다”(Sketch 116). 그 방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벽에 걸려있는 그림들과 그 방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목격하고 그 역사에 물들어 있다. “그 방에서 네 명의 아이들이 잉태되고 태어났다. 거기서 처음엔 어머니가 죽었고, 다음엔 어머니의 사진을 앞에 걸어둔 채 아버지가 죽었다”(116). 그리하여 어머니의 침실은 생명이 잉태되어 태어나는 삶의 근원이며 동시에 죽음을 담고 있다. 어머니의 침실은 빅토리아 시대의 사회적 표상인 가정과 그 수호자이며 핵심인 어머니의 물질적 등가물이 되는 것이다.

클레어 헨슨(Clarie Hanson)은 올프가 『세월』에서 파지터가의 저택인 애버콘

테라스(Abercorn Terrace)를 억압받고 제한 받던 당시 여성의 삶에 대한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Hanson 159). 여성들은 가정 안에 머물도록 강요받았고, 물리적으로는 집이라는 공간 속에 갇혀있게 된다. 한 예로 저녁이 되면 거리로 난 창에 두터운 커튼을 드리워진다. 팔지터 가의 딸들은 그 커튼 자락에 숨어 거리와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곤 하는데 그조차 비난 받고 금지 당한다(Years 18). 앞서 인용한 『세월』에서 어머니의 침실 앞에 멈춰선 덜리아는 집 내부 환경과 대조를 이루는 바깥세상을 작은 창을 통해 바라본다.

통로 끝에 있는 작은 창을 통해 그녀는 연푸른 하늘에 깔린 플라밍고 색을 한 구름자락을 볼 수 있었다. 어둑한 거실에서 있다 나와, 눈이 부셨다. 그녀는 잠시 한 순간 빛에 의해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있었다. (Years 21)

어둡고 닫힌 실내 공간은 죽어가는 어머니와 더불어 마치 무덤 속을 연상시킨다. 마치 작품에 직간접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그리스 비극의 안티고네(Antigone)가 생매장 당하는 돌무덤을 연상시키는 이미지이다. 반면 창을 통해 보이는 색 고운 하늘의 찬란한 빛은 실내의 어둡고 강한 대조를 이룬다.

빅토리아시대는 여성에게 결혼과 가정이라는 틀을 강요하였고, 가정의 중심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가족을 돌보는 희생적인 아내이자 어머니의 이미지를 극도로 미화했다. 울프가 「여성의 직업」(“Professions for Women”)에서 비판하듯이, ‘집안의 천사’(the angel in the house)라는 미명 하에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여성상을 이상으로 내세웠다. 이 ‘천사’는 자신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 특히 남자들의 고통과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를 주는 사람이며, 더욱이 아름답기까지 하다. 이런 아름다운 천사는 집안의 모든 굳은 일을 맡아하고, 음식이 있으면 가장 맛있는 부위를 기꺼이 먹고, 찬바람 드는 문간에 자리 잡고 앉는 그런 존재이다. 그리고 모든 빅토리아 시대 가정에는 이런 천사가 있었다고 울프는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천사’는 여성의 타고난 본성이 아니라 사회적 역사적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가공의 이미지라는 것을 울프는 지적한다. 즉, 대영제국의 근간을 이루는 가부장제와 식민지 통치를 위해 일선에선 남성들의 심리적 정서적 안식처로서의 이 상화 된 가정과 아내, 어머니의 모습은 사막을 건너는 대상들에게 희망을 주는 오아시스의 신기루와 같은 것이라고 말한다.

자 이 존재는, 이점이 그녀가 가진 가장 성가신 특징인데, 결코 실제로 존재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녀는 이상적인 존재이며 허구적 존재였다. 이 점이 더욱 다루기 힘든 부분이다. 그녀는 꿈이자 환상이었다. 지나가는 대상을 현혹시키려고 자연이 사막 한가운데 가져다 놓은 연못과 아자수가 우거진 환영 같은 것이다. 집안의 천사는 (여행의) 먼지 자욱한 긴 여정 중에 사람들을 현혹시키려고 순례 길의 어느 단계에서 남자와 여자들이 상상으로 만들어 놓은 여성성의 이상이었다. 그들은 내가 지금 상세히 논할 수 없는 어떤 이유로 이 이상을 받아들이기로 합의 했다. 그 이유는 대영제국과 식민지, 빅토리아 여왕, 테니스, 중산층의 성장 등과 관련된 것이다. 당시에는 남녀 간의 현실(진짜 관계)은 획득할 수 없는 것이었다. (Pargiters xxx)

이러한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천사로서의 어머니의 이미지는 울프가 지적하듯이 실체가 아니고, 현실에서 존재하기도 어렵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천사 같은 여성상을 강조하는 빅토리아조 문학은 흔히 어머니의 부재로 특징지어진다. 어머니는 출산 중 사망하는 일이 많고, 남겨진 고아는 자신을 이끌어줄 어머니 없이 정체성의 확립과 결혼 또는 사회적 성공이라는 험난한 길을 헤쳐 나가게 되는 것이 당시 유행하던 성장소설(bildungs roman)의 기본구도였다. 캐롤린 디버(Carolyn Dever)는 빅토리아조 문학에서 출산 중 죽는 여성의 비율이 현실에서의 출산사망률을 훨씬 웃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어머니의 죽음은 빅토리아조 문학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해석한다(Dever 11). 다시 말해, 빅토리아 시대 최고의 어머니는 ‘죽은’ 어머니라는 것이다(19). 그들이 이상으로 받드는 모성의 이미지는 너무 고귀하고 완벽해서 현실의 모성이 감히 닿을 수 없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병들어 죽거나, 특히 출산 중 죽음으로써 그 기준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다. 죽은 어머니는 이상적인 ‘천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 간직한 채 아쉽게 떠나버렸기 때문에 미화되고 추억 속에 간직될 수 있다. 그리하여 디버는 모성의 부재라는 형식은 19세기의 이상적 모성상을 유지시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었다고 주장한다(6).

반면에 결혼하지 않은 또는 못한 미혼의 딸들은 어머니를 도와 집안 살림을 꾸리거나, 병든 어머니를 수발하고, 어머니가 없는 경우 그 역할을 대신해야 했다. 앞에서 인용한 『세월』에서 병상에 누운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침실 밖에서 있는 딜리어나 엘리너(Eleanor)처럼, 울프의 의부언니 스텔라(Stella Duckworth)는 병상의 어머니를 돌보고, 나아가 결혼도 미룬 채, 홀로된 아버지와 동생들을 보살피며

어머니 대신 주부역할을 해야 했다. 이후 스텔라가 짧은 결혼 생활 후 죽자, 울프와 언니 바네사(Vanessa Stephen)가 그 뒤를 이어 주부 역할을 해야 했고, 아버지 레슬리 스티븐(Leslie Stephen)의 죽음 이후에야 비로소 이들은 켄싱턴(Kensington)의 하이드파크 게이트(Hyde Park Gate) 집을 떠나 자유를 상징하는 블룸즈베리(Bloomsbury) 지역으로 떠나게 된다. 이 같이 빅토리아 시대의 전통에 얽매어 삶을 저당 잡힌 딸들의 모습이 다시금 「상징」에서 화이트 섬에서 어머니를 임종까지 수발해야 했던 여인의 이야기로 나타난다. 그녀의 이야기에는 죽음에 대한 회한이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보다 그 죽음을 기다리던 자신에 대한 연민과 죄책감을 더 많이 드러낸다. 어머니의 죽음을 초조하게 기다리던 자신을 합리화해 줄 수 있는 것은 없고 몰인정하다는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인식에 맞닥뜨리게 된다.

『세월』에 등장하는 딜리아도 이와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오랜 병고에 시달리며 침실에 불박이가 된 파지터 부인은 빅토리아 시대의 이상으로 추앙 받던 집안의 천사로서의 어머니, 울프가 이상화 하는 헌신적이며 아름다운 줄리아 스티븐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 병석에 누운 파지터 부인은 짐스럽고, 냄새가 나며, 어쩌면 모두들 죽기를 기다리는지 모를 그런 쓸모없고 군더더기 같은 존재이다. 그녀의 딸들은 선뜻 안으로 들어서지 못하고 침실 밖에서 머뭇거린다. 그리움이나 아쉬움을 느껴지지 않는다. 마침내 어머니의 침실에 들어온 딜리아는 잠든 어머니를 바라보며, 이렇게 영겁처럼 버티고 있는 어머니가 죽기를 얼마나 바라고 있는가를 되뇌인다.

“당신은 죽고 싶지 않지요.” 그녀는 어머니가 죽기를 갈망한다. 거기 어머니는 연약하고, 쇠약한 상태로, 영속하고 있었다. 베게 더미를 높이 베고 누워 모두에게 걸림돌이며, 방해꾼이 되어. 딜리아는 애정을, 연민의 감정을 불러내려 애썼다. (Years 22)

딜리아는 억지로라도 연민의 감정을 느끼려 어머니와의 다정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지만, 오히려 어머니의 존재가 어떻게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있는지 뚜렷해지고, 어머니에 대한 그녀의 감정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된다.

마침내 어머니는 죽고, 딸들은 제각기 자신의 삶을 찾아 떠났다. 울프 자매는

블룸즈베리로 집을 옮기고 바네사는 화가로 울프는 작가로 각자의 길을 간다. 『세월』의 딜리아와 엘리너도 아버지 파지터 대령이 죽자 집을 정리하고 떠나고, 「상징」의 여인도 그녀가 갈망하던 인도를 여행했으리라. 이제 중년이 되어 알프스의 산장에서 그녀는 어머니의 죽음을 기억하며 자신의 삶을 돌이켜본다. 그녀는 창밖의 산을 바라보며 어머니의 죽음을 기다리던 당시 어머니의 죽음과 산 정상에 오르는 것을 연계시켰던 기억을 떠올린다.

저 산은 내가 혼자 있을 때 어떻게 어머니의 죽음을 하나의 상징으로 여겼던지를 생각나게 한다. 내가 그 지점(어머니의 죽음)에 다다른다면, 내가 자유로워진다면 하는 생각들을 하곤 했지. 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 너도 기억하겠지만 우린 결혼할 수 없었으니까. . . . 너무 무정한 것 같아 아무에게도 말한 적은 없지만, 그 지점에 도달하면 난 산 꼭대기 정상에 도착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CSF 289)

그녀가 갈망했던 어머니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과 더불어 그녀가 도달하게 될 산의 정상은 ‘자유’뿐만 아니라 삶과 죽음을 모두 내포하는 거대한 우주적 모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작품의 도입부에서 화자(이 글의 화자는 편지를 쓰는 여인과 동일인물이 아니다)는 매마르고 황량한, 하지만 신비로운 눈 덮인 산 정상 모습에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산 정상에는 달의 분화구처럼 움푹 패인 작은 구덩이가 있었다. 거기에 눈이 가득 차서 마치 비둘기 가슴처럼 반투명하게, 어두운 흰 빛으로 빛났다. 메마른 입자들이 아무 것도 내려 덮지 않고 이리저리 휘날리곤 했다. 여기는 숨쉬는 생명체나 털 짐승이 살기에 너무 높은 곳이었다. 변함없이 눈은 해가 비치는 데에 따라 한 순간 무지갯빛으로 빛나다가 핏빛이 되고, 순백색이 되었다. (CSF 288)

달의 분화구처럼 움푹 패인 작은 구덩이에 하얀 눈이 마치 비둘기 가슴의 솜털처럼 부드럽게 쌓여 있지만 생명이 없는 죽음의 백색이라는 표현은, 마치도 대지의 어머니의 자궁과 무덤의 모습을 결합시킨 것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비현실적이고 초월적인 이미지의 차갑고 메마른 그곳은 생명이 숨쉬기엔 적합하지 못한 장소라는 것이다. 이러한 눈 덮인 정상을 이고 있는 산 아래쪽 계곡에는 산을 오



르다 죽은 이들을 위한 무덤이 있고, 그 아래쪽에는 한 묶음의 계란 껍데기 모양을 한 지붕들(a cluster of eggshell roofs, 288)이 웅기종기 모여 있다. 산 정상에서부터 점점 아래로 시선을 옮기며 묘사하고 있는 이 풍경은, 생명을 잉태하는 자궁과, 무덤, 생명을 담은 알, 그리고 그 옆에 공존하는 작은 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마을은 호텔과 영화관과 묘지가 또한 갖추어져 있다. 이는 거대한 자연과 인간, 그리고 인간문명의 관계를 축소해 놓은 것 같은 모습이다. 여기서 그려지는 어머니는 생명이자 죽음이고, 인간이 정복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이기도 하다. 이러한 모성의 모습은 앞서 크리스테바가 말하는 전기 나르시시즘 단계의 어머니, 즉 다가서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존재인 모성의 모습과 유사해 보인다. 산 정상에 오르는 것을 어머니의 죽음과 연계시켜 볼 때, 정상에 도달하려는 시도는 자신의 존재의 근원으로서의 어머니의 죽음으로 회귀하려는 시도이고, 이러한 시도는 발생근원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자신의 죽음을 담보하는 위험천만한 여정인 것이다.

어머니의 병과 죽음을 회상하며 편지를 써내려 가던 여인의 눈앞에서 산을 오르던 두 젊은이들이 갑자기 사라진다. 앞서 산을 오르다 죽어간 사람들처럼 이 두 사람도 죽음을 맞은 것이다. 밤늦게 사람들이 시신을 수습하고 나서 비로소 여인은 쓰다만 편지를 발견하고 끝을 맺으려 한다. 처음 산을 바라보며 산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그 의문은 아직 풀지 못한 채, 편지를 이렇게 마무리 한다.

해묵은 진부한 표현이 딱 들어맞는다. 그들은 산을 오르려고 하다가 죽었다... 그리고 농부들이 그들의 무덤에 봄꽃을 가져다 놓았다. 그들은...을 발견하려고 시도하다가 죽었다. (CSF 290)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자 했다는 것, 그러한 시도 중에 죽었다는 것, 그리고 죽은 이들을 기리며, 농부들이 봄꽃을 가져다 놓는다는 것은 진부한 시나리오지만, ‘산’이 상징하는 그 무엇에 대한 해답을 대신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작품을 쓸 당시 율프는 종말이 다가옴을 절박하게 느끼고 있었고,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자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작품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삶의 끝자락에서 율프는 과연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어디서 찾고 있을까? 이에 대한 실마리는 이 작품의 수정 되기 이전의 원고에서 그 근거를 찾아 볼 수 있는데, 거기에는 산을 “노력의 상징”(the symbol of effort)

라고 결론짓고 있다(CFS “Notes” 320). 그러나 수정된 원고에서는 편지를 쓰던 여인은 “하지만 그것은 맞지 않아. 이 산꼭대기가 의미하는 다른 것은 전혀 진부하지 않은 거야. 사실 그것은 절대 글로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녀 자신에게조차 거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unspeakable)”이라고 생각하며 결론을 생략부호 “. . .”로 대신하고 있다. 레이첼 바울비(Rachel Bowlby)는 울프에 있어 생략부호는 말로 표현될 수 없는 그 무엇을 나타낸다고 주장한다. “전통적으로 세계의 점은 불특정한 길이의 어떤 것이 생략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울프의 생략부호는 언급하도록 허락되지 않았거나 또는 주변 문장들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생략되는 어떤 것을 나타낸다”(Bowlby 161-62). 어쩌면 크리스테바가 말하는 애브젝트로서의 어머니, “매혹과 공포”로 우리에게 다가서는 뿌리칠 수 없지만 포용할 수도 없는 어떤 것, 즉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울프는 여기서 “산”이라는 상징을 빌어 나타내려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앞서 언급했듯이 단편 「상징」은 울프의 자서전적인 작품으로 이해될 수 있다. 물론 여기서 자서전이라 함은 전통적 의미에서가 아니라 좀 더 폭넓은 의미로 자서전적인 소설이나 시, 수필 등 다양한 장르의 글쓰기를 포괄하는 것이다. 쇼샤나 펠먼(Shoshana Felman)은 여성에게는 엄밀한 의미에서 자서전이 없다고 주장한다. 여성의 삶의 핵심은 트라우마(trauma)이며 트라우마란 스스로의 이야기로 인지하지 못하는 삶의 상처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로 소유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작가의 삶의 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공식적으로 자서전이라고 내세우는 이야기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들의 소설작품을 함께 읽음으로써 그들이 자신의 이야기로 소유하지 못한 이야기를 읽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작가가 허구라는 가면을 쓰고 의식적으로 자신의 숨은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타자의 이야기”(a ‘story of the Other’)를 통해 스스로가 소유하지 못한 그러나 자신의 삶의 핵심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펠먼은 ‘타자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즉, “다른 여인에 의해 읽혀지는 이야기, 다른 여인의 이야기, 타자에 의해 말해지는 이야기”(the story read by other women, the story of other women, the story told by others)이다. 그리고 이러한 “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만이 자서전을 갖지 못하는 여성들이 자신들의 이야기에 다가갈 수 있다고 보았다(Felman 13-14). 『등대로』(*To the Lighthouse*)에서, 또한 「과거의 소묘」에서 울프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어

머니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듯이, 「상징」에서 편지를 쓰는 여인은 어머니의 죽음을 회상한다. 무언가를 찾기 위해 “항상 높은 곳을 향해 오르는” 산악인들처럼, 자신의 삶과 죽음을 이야기하기 위해 울프는 어머니의 죽음의 언저리를 맴돌며 글을 쓴다. 어쩌면 「상징」에서 추락사하는 젊은이들은 『델러웨이부인』에서 셉티머스(Septimus)의 죽음이 클라리사(Clarissa)의 죽음을 대신하는 것처럼, 편지 쓰는 여인의 죽음을 대신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삶과 죽음을 관조하며 압도하는 산의 이미지는 상당히 오랜 동안 울프의 뇌리에 남아 있었던 것 같다. 눈 덮인 정상에 관한 이미지는 울프의 1937년 일기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산 정상의 관한 이야기를 쓰고 싶다. 그럼 왜? 눈 속에 누워있는 것에 대해, 색색깔의 고리에 대해, 침묵 … 그리고 고독. 하지만 할 수가 없군, 하지만 언젠가는 그 세계로 들어가 잠시 즐길 수 있지 않을까?”(D5 95, 22 Jun. 1937). 꿈에서 본 듯한 이러한 눈 덮인 산의 이미지는 몇 년 전 울프가 친구 비타 세크빌웨스트(Vita Sackville-West)의 집에서 만났던 젊은이가 알프스로 신희 여행을 갔다가 크레바스에 떨어져 사망했다는 이야기와 결부되어 더욱 구체화된다. 울프는 일기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일 년 중 가장 더운 날이다. 그러니까 그건 거의 작년 오늘쯤 되는 때였다. 나는 롱 반(비타의 집)에 갔었고 거기에 이른 학교 선생인 푸른 눈에 하얀 이 그리고 곧게 뻗은 코를 가진 한 멋진 젊은이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는 스위스의 한 크레바스 바닥에 누워있다. 아주 무더운 이 저녁에 그의 사랑하는 메리 어빙 곁에 으스스한 채 누워있다. 두 주점은 영원히 그곳에 있다. 아마도 얼음조각이 떨어지거나 조금의 움직임이 있겠지. 푸른 색 또는 초록색 빛이 비치거나 완벽한 암흑일 것이다. 그들 주위에 아무런 움직임도 없겠지. 트위드 옷과 징 박힌 부츠를 신고 서로 가까이 결빙된 채로 그들을 거기 누워있다. 그리고 나는 이곳에 있다. 내 별채에서 글을 쓰며, 추수하는 들판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아마도 마치 굴렁쇠처럼 휘 던져지는 것을 느끼고, 심하게 부딪히고, 통제할 수 없다는 처음의 공포감을 지나 무감각해졌으리라. (D3 314, 28 Aug. 1930)

울프의 상상력은 만년설의 얼음 속에 숨겨진 젊은 부부의 마지막 순간과 그들의 주점이 자연의 일부가 되어 버린 시간을 초월한 공간으로 확대된다. 설산의 수직적인 공간은 울프에 있어 어머니와 연계된 이미지인 바다 밑, 해저공간의 상관물

로 볼 수 있다.

추락과 익사를 연결하는 예는 울프의 소설 여기저기서 발견된다. 『출항』(*The Voyage Out*)에서 레이첼(Rachel Vinrace)은 환상 속에서 자신이 익사하는 상황을 상상을 하는데, 바다의 파도는 산기슭으로 대치되고 그녀의 몸은 눈 덮인 산이 된다.

그녀는 어둡고 끈적끈적한 물웅덩이의 표면으로 올라왔다. 그러자 파도가 그녀를 밀어올렸다 놓았다 하는 것 같았다. [...] 파도는 산등성으로 바뀌었다. 그녀의 몸은 녹으며 훑날리는 눈이 되었고, 그녀의 무릎은 앙상한 뼈로 된 거대한 산꼭대기가 되어 솟아올랐다. (*Voyage* 369)

이와 같이 바다와 산의 이미지가 결합되는 것은 다른 작품에서도 볼 수 있는데, 『델러웨이 부인』에서 셉티머스는 창밖으로 몸을 던지고, 클라라서는 그의 죽음을 ‘암흑의 바다로 뛰어드는 것’(“plunging” into the water of darkness)이라고 생각한다(MD 242). 또한 『파도』(*The Waves*)에서 로다(Rhoda)는 스페인의 산 정상에서 그 아래 깊은 심연으로 뛰어드는 자신을 상상한다.

우리는 이제 절벽 너머로 뛰어든다. 우리 밑에는 청어 잡이 선단의 불빛이 밝다. 절벽이 사라진다. 잘게 물결치고, 회색빛으로 물결치며 수많은 파도가 우리 밑에서 퍼져나간다. 나는 아무 것도 닿지 못하고 아무 것도 보지 않는다. 우리는 가라앉아 파도에 몸을 맡기겠다. 바다가 우리 컷전을 때릴 것이다. 하얀 꽃잎은 바닷물에 검게 변하고 잠시 떠돌다 가라앉을 것이다. 파도는 나를 떠밀고 아래로 가라앉힐 것이다. 모든 것인 거대한 소나기 속으로 떨어지고 나를 무화시킨다. (*Waves* 171)

로다가 몸을 던지는 산 정상은 상상 속에서 그 아래 펼쳐지는 바다로 연결되고 산과 바다는 하나가 된다. 이렇게 볼 때, 눈 덮인 산 정상에서의 죽음은 울프의 작품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익사 이미지의 변형일 수 있다. 울프의 아버지 레슬리 스티븐은 저명한 산악인이기도 했고,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이 울프의 산에 대한 상상력에 영향을 주었는지도 모른다(Bell, vol. 1, 8).

산에서의 죽음이 울프에 있어 익사의 이미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 익사가 탄생이전의 상태, 즉 모체로의 회귀를 의미하듯이, 산에서의 죽음은 작품 머리에

등장하는 산정의 작은 움푹 패인 곳, 태초의 대지에 마련된 자궁으로의 회귀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모체와 어머니의 죽음을 탐색하는 것은 울프가 『자기만의 방』(*A Room of One's Own*)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머니를 통해 생각하기”(Think back through our mothers)의 시도로 볼 수 있다. 즉, 펠만이 주장하는 것처럼 여성작가가 자신의 삶의 의미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삶의 근원인 모체와 어머니의 죽음을 다시 되새길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편지를 쓰던 산정의 여인은 산과 어머니의 죽음, 자신의 삶에 대한 회고, 그리고 산을 오르던 젊은이들의 죽음을 통해 “산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처음 자신이 품었던 의문의 답을 찾아보지만 결국 “산이 상징하는 것은 …”하고 말을 맺지 못한다. 그녀가 끝까지 산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산이 상징하는 것이 결국, 크리스테바가 말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the unspeakable) ‘상상조차 불가능한 것’(the unthinkable)이기 때문일 지도 모른다. 이는 어쩌면 삶의 근원이며 집안의 천사로 까지 미화되는 온화하고 사랑에 찬 어머니가 아니라, 주체(subject)로서의 우리의 존재를 위협하고, 존재의 심연이며, 끔찍하지만 거부할 수 없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존재, 에브젝트로서의 모성, 그리고 그 끔찍한 모성의 죽음을 통해 자신의 죽음을 들여다 보아야하기 때문이 아닐까? 수정되기 전 원고에는 편지를 쓰는 여인이 이렇게 적고 있다. “말도 안 되는 꿈을 꾸었다. 내가 만일 그곳(산 정상)에 도달한다면, 난 기쁘게 죽을 것 같다. 거기, 달 표면의 얼룩같이 보이는, 분화구에서 나는 아마도 해답을 찾게 될 것 같다”(CFS “Notes” 320). 이는 작품의 서두에 등장하는 정상의 작은 동지 같은 분화구, 즉, 메마르고 생명이 없는 자궁, 곧 무덤으로 회귀하는 이미지를 그려내고 있다. 울프가 이 작품을 처음에는 “결론없음”(Inconclusions)라 명명했었다는 것은 흥미롭다. 울프가 이끌어냈던 삶에 대한 결론은 어쩌면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다시 작품의 도입부로 되돌아가 보면, 중년의 여인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발코니는 마치 극장의 관람석처럼 마을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고, 마을에서 상연되는 연극들(또는 펼쳐지는 삶 자체)은 결론이 없는 그런 극들로 비현실적인 느낌이 든다고 묘사되고 있다.

발코니에서는 마치 극장의 개인 특별석에서처럼 알프스 여름 휴양지의 중심거리가 훤히 내려다보인다. 개인 거실이 거의 없어서 개막 공연 같은 연극들은

바깥에서 공연되었다. 그 연극들은 약간 임시로 만들어 진 감이 있었다 서막들, 개막작들. 시간을 보내기 위한 오락거리들로 결론에 이르는 일이 거의 없고, 환상적이고, 가볍고, 결말이 없었다. (CFS 288)

이러한 ‘결론 없음 또는 결정되지 않음’이 작품의 서두에서부터 주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어머니에게서 시작되어 다시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는 여성으로서의 삶의 의미는 직선적으로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작되었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원모양을 그리고 있고, 이러한 회귀는 ‘결론’이 없는 무한히 영속하는 존재가 된다. 삶의 의미를 가늠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어머니의 삶과 죽음을 통해 자리매김해보려는 울프의 시도는 결국,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로 산은 과연 단지 무엇에 대한 상징일까? 라는 의문부호와 채워지지 않은 말줄임표로 표상되고, 이는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하는 어떤 것, 우리의 언어와 의식을 넘어서는 저 너머의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작가의 딜레마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것을 언어라는 매개체에 담아내려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상징」에서 ‘산’은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려 노력하는 작가로서의 울프의 삶을 상징하는 “노력의 상징”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 즉 크리스테바의 표현을 빌면, ‘애브젝트의 작가’로서의 노력이 울프의 작가로서의 삶에 대한 하나의 가장 적절한 상징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톨릭대)

## 인용문헌

- Bell, Quentin. *Virginia Woolf: A Biography*. 2 Vols. London: Hogarth, 1972.
- Bowlby, Rachel. *Virginia Woolf: Feminist Destinations*. Oxford: Basil Blackwell, 1988.
- Dever, Carolyn. *Death and the Mother from Dickens to Freud: Victorian Fiction and the Anxiety of Origins*. Cambridge: Cambridge UP, 1998.
- Dick, Susan. ed. *Virginia Woolf*. London: Edward Arnold, 1989.
- Felman, Shoshana. *What Does a Woman Want?* London: Johns Hopkins UP, 1993.
- Hanson, Clare. *Virginia Woolf*. London: Macmillan, 1994.
- Kristeva, Julia. *Powers of Horror: An Essays on Abjection*. New York, Oxford: Columbia UP, 1982.
- Oliver, Kelly. *Reading Kristeva: Unravelling the Double-Bind*. Bloomington: Indiana UP, 1993.
- Woolf, Virginia. "On Being Ill." *Collected Essays*. Vol. 4. Ed. Leonard Woolf. London: Hogarth, 1967. 193-203.
- \_\_\_\_\_. *The Waves: The Two Holograph Drafts*. Trans. & Ed. J. W. Graham. London: Hogarth, 1976.
- \_\_\_\_\_. "The Sketch of the Past." *Moments of Being: Unpublished Autobiographical Writings of Virginia Woolf*. Ed. Jeanne Schulkind. London: Sussex UP, 1976. 61-137.
- \_\_\_\_\_. *The Diary of Virginia Woolf*. 5 Vols. Ed. & Intro. Ann Olivier Bell. London: Hogarth, 1977-984.
- \_\_\_\_\_. *The Pargiters: the Novel-Essay Portion of the Years*. London: Hogarth, 1978.
- \_\_\_\_\_. *A Room of One's Own*. San Diego: Harcourt Brace & Co, 1981.
- \_\_\_\_\_. "The Symbol." *The Complete Shorter Fiction of Virginia Woolf*. Ed. Susan Dick. London: Hogarth, 1989. 288-90, 319-21(Notes).
- \_\_\_\_\_. *The Years*. London: Hogarth, 1990.
- \_\_\_\_\_. *A Room of One's Own*. San Diego: Harcourt Brace & Co., 1981.
- \_\_\_\_\_. *The Voyage Out*. The Definitive Collected Edition. London: Hogarth, 1990.

## Abstract

### Engendering the Story of Daughters' Life through the Mother's Death

Heonjoo Sohn

“The Symbol” is a short story written at the very last moment of Virginia Woolf’s life and in the rage of the World War II. It is a story of a mountain and the mother’s death remembered by a lady who is on a vacation at the Alpine resort. This paper is to read the story as one of Woolf’s autobiographical attempts to measure the meaning of her own life.

Impressed by the overwhelming sight of the Alpine mountain, the lady believes that the mountain is a symbol but cannot decided what it may symbolize. Pursuing the answer for the question, she writes a letter to her sister in England. In the letter she revisits the old memory of her mother’s illness and death and how she longed for her death and the ensuing freedom. The nameless lady in the Alpine resort reminds us of Eleanor or Delia in *The Years* who had to take care of their sick mother until her death, also taking the mother’s place in the family, sacrificing their own personal life and freedom. It looks as if Eleanor writing to Delia in her late days about their mother and those old days. It could also be Woolf herself writing to her sister Vanessa, recalling their youth and the mother. Witnessing the death of young men in an attempt to climb the mountain, the lady closes the letter without reaching the answer for the question. Instead she only leaves three dots.

It is arguable that the mountain could be the symbol of the mother who is the origin of the daughter’s life and remains as an abject, which is neither the subject nor the other. Because the mother and her death is located at the very center of Woolf’s life as well as other women’s, the story of the mother’s death should be told and revisited to engender the story of daughters’ life. Thus the short story “the



Symbol” could be Woolf’s attempt to “think back through our mothers” in order to engender the story of her own life.

■ **Key words** : symbol, the mother, death, Woolf, Kristeva, autobiography  
(상징, 모성, 죽음, 울프, 크리스테바, 자서전)

논문 접수: 2009년 11월 10일

논문 심사: 2009년 11월 20일

게재 확정: 2009년 12월 13일